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보육교사와 영유아 어머니의 고민과 노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서연\* · 김숙령\*\*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 보육교사와 어머니가 어떠한 고민을 하며 어떠한 대응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2021년 3월 4주부터 4월 5주까지 교사와 어머니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보육교사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통제하기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긴급 보육으로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줄어 든 상황을 질적으로 높아진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해진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된 바깥 놀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어머니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행복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교사되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머니의 고민은 일하는 부모라서 아이에게 미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과 가정에서의 보육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은 자녀와 질적인 시간을 늘리고 미래 팬데믹 현상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전염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고민과 노력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팬데믹 정책 지원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필요한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코로나 19, 보육교사, 어머니

논문투고일 : 2022. 10. 01.      최종심사일 : 2022. 12. 19.      게재확정일 : 2022. 12. 23.

\* 이 논문은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축약 수정 보완함.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m, Sook Ryon. Howard Memorial Hall 411, Baejae-ro 155-40,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35345. E-Mail : srkim@pcu.ac.kr

## I. 서론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질병에 의한 영유아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조경희, 2015)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나자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0년 4월 11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분부장은 “거듭 말하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며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강조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은 어린이집을 비상 상황에 놓이게 한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생리적 변화에 대해 취약하여 질병 발생률이 높고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홍진호 외, 2019). 그리고 어린이집은 많은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밀집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잦은 접촉이 일어나 전염병에 취약하고(민정애, 2020) 집단감염으로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육 현장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주아련, 2020).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 원칙, 방역 지침을 포함한 코로나 19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2020년 2월부터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5판)과 소독 기준 마련, 일시 폐쇄·휴원 기준과 보육 공백 방지 조치, 어린이집 운영 안내(휴원실시와 시간제보육 운영 관련),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지원을 공표하고 어린이집 평가 및 교직원 교육 진행에 대해 공지하였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수준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에 준하고 어린이집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최윤경, 2020). 또한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 체계를 구성하였고 감염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 19 예방과 관리 책임성을 부여해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 관리,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국내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어린이집에 재배포하였다(박영아·조미현, 2020). 이처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장기적 대응 방침이 아닌 쉼새 없이 내려오는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을 받아 실행해야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최전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및 위생 관리, 영유아의 안전과 그 가정의 안위를 살피며 평소와 같이 보육 업무를 묵묵히 하는 보육교사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와 보호 체계 및 교대 근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어린이집의 소독과 방역,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 등원/미등원 아동에 대한 가정 돌봄지원 및 모니터링과 같은 업무가 부가됨에 따른 교직원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자 어린이집 등록을 포기하고 가정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아동이 증가하여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과 교사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향도 나타났다(최윤경, 2020).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19를 겪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손희나(2020), 박영아·조미현(2020), 손준희 외(2020)의 연구는 코로나 19를 겪는 어린이집의 어려움과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코로나 19를 겪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 19를 겪는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를 한 최예린(2020)과 코로나 19가 보육교사에게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명준희 외(2021), 임하진(2021)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유아기 어머니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한 주하나(2020), 주해란·한아름(2021)의 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도가 양육에 영향을 미침을 이야기하며 긴급재난 상황에서 돌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교사나 실습교사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정희정, 2021).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팬데믹 발생은 영유아보육 현장과 연구 동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 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한 기관 내에서 코로나 19를 겪으며 느끼는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고민과 노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의미있는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보육교사와 어머니가 어떤 고민을 하고 극복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협력관계에 있는 교사와 부모의 상호이해를 돕고, 나아가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로 인해 보육교사와 어머니가 느끼는 고민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어머니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 보육교사의 배경

본 연구 참여자는 D시 소재 A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명이다. 보육교사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교사 중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를 선정하여 코로나 19를 겪는 과정에서 발달적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자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교사로서, 코로나 19 경험에 대해 진솔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 보육교사

참여자	나이	학력	담당 학급	경력	결혼유무
김교사	50대 초반	대학 졸업	만 1세	16년	유
조교사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	만 3세	6년	유

#### 2) 연구 참여 어머니의 배경

본 연구 참여자는 A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하는 어머니 3인이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자녀가 재원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후 긴급보육을 경험하고 또한 코로나 19

가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상황에서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 본 어머니들이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심층적인 면담에서도 신뢰로운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준 연구 참여자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 어머니**

참여자	나이	긴급보육시 보육 형태	재원 자녀 나이	자녀수	직업
A어머니	30대 중반	가정보육/ 긴급보육	만 1세	2	가정주부
B어머니	30대 후반	가정보육/ 긴급보육	만 2세	2	교사
C어머니	30대 중반	긴급보육	만 1세/ 만 3세	2	공무원

## 2. 연구 참여 어린이집

연구 참여 어린이집인 A어린이집은 D소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14명의 보육 교직원인 근무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 정원의 수는 53명이다. 만 1세 3개반, 만 2세 3개반, 만 3세 1개반, 총 7개의 반이 있다. 만 1세에서 만 4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면적 140m<sup>2</sup> 규모의 보육실을 갖춘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야외놀이터 1개가 있고 근린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 1) 예비연구

본 연구의 예비연구는 2021년 3월 3주에서 2021년 4월 1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인 보육교사들과 일 년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쌓은 신뢰도와 친숙감을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겪는 어려움과 대응방법에 대해 일상의 대화를 나눈 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사전 질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직원과 코로나 19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를 하원 시키러 왔을 때 연구자와 인사를 나누며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를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 어머니들에게 면담의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 된다는 사실을 알린 후 면담 내용이 녹음 된다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면담 동의서에 자발적인 서명을 받았다. 자녀의 하원 전 연구참여 어머니와 한적한 어린이집 놀이터 벤치에서 인사를 나누며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과 어머니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면담 질문에 대한 진솔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사전 질문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과 육아관을 알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였고 작년 코로나 19를 겪으며 어떻게 생활했는지 간략한 질문을 통해 어머니는 면담의 일련의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담의 기술의 방법과 질문 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일정은 연구참여자와 협의하여 조율하였고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주로 교사의 휴게 시간이나 연구참여 어머니의 자녀 하원 시간에 대면으로 면담하였다. 사전 면담 시간은 한 사람당 40분-50분 정도 이루어졌다. 사전 면담 질문 목록은 연구 참여자가 가진 사전 배경을 알기 위한 조사 단계로 구성되었다.

## 2) 본 연구

본 연구는 4월 2주부터 4월 5주까지 4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맞추어 면담 시간을 조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협의하여 연구 참여자가 안정된 마음으로 면담할 수 있는 편한 시간과 장소로 정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하원 후 어린이집 교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집 앞 조용한 공터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며 면담을 하였다. 코로나 19의 대응지침을 지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면담을 하였다.

본 면담은 우선 1차와 2차로 나누어 개별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4월 2주-4월 3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2차 면담은 4월 4주에, 3차 면담은 4월 5주에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인당 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1, 2차 심층 면담 녹취 내용들을 전사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읽은 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어려움의 윤곽을 잡았다. 3차 면담을 통해 같은 질문을 다시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의 모호함을 확실히 하고 정교화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녹음된 내용은 면담 당일에 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참여자가 사용하는 어투를 그대로 표현하도록 전사하였다. 면담 종료 후 면담 내용을 전사하다가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연구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대답을 하면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개방적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추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면담 내용을 확장해 나가며 진행하였다. 면담 자료 외 면담 이후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연구자의 저널로 작성한 연구자 저널, 코로나 19에 관한 교사 회의록, 코로나 19 체크리스트, 코로나 19 관련 가정 통신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에 관한 최신 정보와 공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 19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 및 수집된 자료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자료 수집 방법 및 수집된 자료 목록**

자료수집유형	자료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
면담자료	사전 면담 - 면담	- 담화 전사본(분량 A4 25장) - 사전 면담 질문목록
	1차 면담 - 전화 - 면담	- 면담 전사본(분량 A4 62장) - 본 면담 질문 목록
	2차 면담 - 전화 - 면담	- 면담 전사본(분량 A4 32장) 본 면담 질문 목록
	3차 면담 - 전화 - 면담	- 면담 전사본(분량 A4 21장)
연구자 저널	- 연구자의 기록	-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연구자의 저널로 작성(분량 A4 23장)
어린이집 문서	- 키즈노트	- 코로나 19 부모 안내문
	- 교사 회의록	- 코로나 19 예방 수칙 유튜브
	- 어린이집 내 코로나 19 관련문서	- 키즈노트 공지사항, 댓글
	- 보육통합시스템	- 교사 회의록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 체크리스트
신문기사	- 인터넷 검색	- 어린이집 방문자 출입관리 - 정부 공문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I~VIII편
		-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 19 기사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김영천(2016)의 방법에 따라 면담 내용과 연구자의 저널을 반복적으로 읽어 주제별 약호화(coding) 과정을 거쳐 내포된 메시지와 의도를 찾아내고 관련있는 주제로 상호 연결 시키면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임하진(2021), 최예린(2020), 손주희·김선희·이희영(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1단계,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를 인식하고 2단계, 연구하고 있는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형상에 초점을 두면서 다시 여러 차례 텍스트를 읽는 것이다. 3단계로 수립된 의미 단위들을 중심 의미로 주제화하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고 4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를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의 의미를 상황적 구조로 진술하여, 개인의 독특성을 포괄하는 행동의 구조적 진술을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 19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극복 노력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함으로써 내용을 정교하게 기록하였다. 2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읽으며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코로나 19에 대한 고민,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력 중심으로 의미 단위들을 나누었다. 3단계에서는 나누어진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였다. 적절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기 어려운 내용은 상식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4단계에서는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의미 단위들을 동일한 의미로 묶어 의미 단위를 요약하여 도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교사의 고민은 8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2개의 상위 구성 요소로 도출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어머니의 고민은 4개의 하위 요소와 2개의 상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보육교사의 코로나 19 극복 노력은 5개의 하위구성 요소와 1개의 상위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어머니의 코로나 19 극복 노력은 3개의 하위 요소와 1개의 상위 요소로 도출되었다. 즉, 총 26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7개의 상위 구성요소가 확인되었으며 최종범주의 구성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코로나 19로 인한 고민의 최종 범주 구성**

구분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1.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교사의 고민	1) 보육교사의 코로나 블루	① 내가 코로나 접촉자이면?
		② 보육교사란 직업에 대한 회의
		③ 영유아 퇴소에 따른 스트레스
		④ 보육교사의 인권
	2) 어머니 통제의 어려움	① 긴급보육의 의미의 퇴색화
		② 더 예민해진 어머니
		③ 가정 보육하는 영유아에게 교육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연계 활동 실시
		④ 높아진 등원률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어려움
1. 코로나 19로 인한 어머니의 고민	1) 일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드는 미안함과 불안함	① 긴급보육 보내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
		② 직장 내 확진자로 인한 밀접접촉자로 인한 불안함
	2) 가정 보육의 어려움	① 불규칙한 생활습관
		② 발달에 맞는 적기 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어려움

**<표 5> 코로나 19 극복 노력의 최종 범주 구성**

구분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1. 보육교사의 코로나 19 극복 노력	1) 업그레йд 되어가는 보육 현장	① 긴급보육으로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줄자 질적으로 높아진 교육과 보육의 질
		②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해진 보육 환경
		③ 외부와 차단된 바깥 놀이터의 중요성
		④ 어머니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하는 현장
		⑤ 행복한 교사되기
2. 어머니의 코로나 19 극복 노력	어린이집에서 안내하는 방역수칙 및 실천지침 지키기	① 질적인 자녀와의 시간 증가
		② 미래의 팬데믹현상에 대한 마음가짐
		③ 전염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 형성

### Ⅲ. 결과 및 해석

#### 1.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고민

##### 1) 코로나 19로 인해 보육교사가 느끼는 고민

###### (1) 보육교사의 코로나 블루

###### ① 내가 코로나 접촉자이면?

A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인해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선 공개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다 보니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주변 사람에게 끼칠 피해로 마음이 답답해져요. 혹시 내가 감염자라서 동선이 공개됐을 때 직장과 집의 장소가 아니면 비난받을 것도 두려워요. 열심히 일 한 다음 휴식을 하고 싶은데 직장, 집 패턴을 벗어날 수 없으니 마음이 리프레시 되지 않고 답답해요 (C교사, 사전 면담, 3월 26일)

A어린이집 교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잘 실천하고 있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될까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 ② 보육교사란 직업에 대한 회의

정부에서 상명하달식의 행정지침을 어린이집으로 내리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화이자 백신이 더 안전하다는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네요? 안 맞겠다고 하면 이 일을 못하겠죠...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죽었다는 기사와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 무서워요. 보육교사들에게만 너무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 (B교사, 1차 면담, 4월 5일)

A어린이집 교사들은 사회적 대우에 비해 역할에 대한 사명감만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 ③ 영유아 퇴소에 따른 스트레스

코로나 19로 재원 영유아의 퇴소나 입학 취소로 보육교사들은 고용 불안함과 실직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임하진(2021)과 이정아(2021)의 연구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실직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다.

우리 어린이집 근처 시립 어린이집 이야기 들었나요? 영아반 아이들 정원이 차지 않아서 반 하나가 없어졌다고...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곳도 이렇게 힘든데...가정 어린이집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일이 아닌게 우리도 빨리 영아반 인원이 차야 할텐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깐 영아들 엄마들이 기관에 안보내는 것 같아요. (B교사, 사전 면담, 3월 25일)

A어린이집 교사는 영아반의 정원이 차지 않자 고용의 불안함을 느꼈고 영아반 정원에 비해 적게 원아모집이 된 이유를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보육교사의 인권

어린이집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코로나 19 대응지침들은 보육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진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TV에서는 방역복 입고 소독하던데 우리는 그냥 하자나요. 퇴근할 때는 플루건 뿌리고 창문을 닫고 가는데 내 몸에 참 안 좋겠단 생각이 들죠. 그래도 우리가 시키는 건 잘하자나요. 안 좋다는 건 알지만 혹시 모르니 방역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 활동 안하고 있는게 CCTV에 나온다는 생각하면 내 일을 내가 안 한거잖아요. 방역복을 갖추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방역 전문 업체에서 나와서 소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C교사, 1차 면담, 4월 7일)

A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를 방역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더불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린이집 방역지침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 (2) 어머니 통제의 어려움

A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머니가 단체생활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의 어려움과 동시에 여러 어머니의 요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① 긴급보육 의미의 퇴색화

A어린이집 교사들은 코로나 19로 긴급보육 시 가정에서의 양육이 가능한 어머니의 원아가 등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점차 등원하는 영유아들이 많아질수록 보육교사들은 어머니들의 무더짐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보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의 등원을 수요조사를 하면 가정주부의 자녀가 매번 등원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긴급보육했어요. 이럴 때 참 애매해요. 이미 여러 차례 긴급보육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만 보내는 거라고 여러 번 안내가 나갔었는데도 자녀를 보내겠다는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사 경력이 늘어도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존재예요. (B교사, 1차 면담, 4월 5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자 점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들이 많아졌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되지 않음을 걱정하였으나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등원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 ② 더 예민해진 어머니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규칙을 따르는 한편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원칙을 지키되 보완해야 할 것들을 보완하면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A어린이집만의 방역방법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어머니에게 신뢰를 주면서 영유아들의 안전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예민해진 어머니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마스크를 너무 오랜 시간 쓰는게 안스럽다고 안쓰고 싶어 하면 안쓰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어머니는 위험한 상황이니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해요. 서로 다른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바깥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안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네요. (B교사, 2차 면담, 4월 19일)

### ③ 가정보육 영유아를 위한 가정 연계활동 실시

교육기관이 장기적으로 폐쇄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아동학대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코로나 19로 가정보육 하는 영아들의 안위를 자주 묻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감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업무 추가의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보육 하는 어머니가 지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기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영아의 성장을 도운 것 같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발달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아를 어머니의 설명만 듣고 이야기 하다보니 어머니에게 잘 안 와닿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B교사, 3차 면담, 4월 26일)

작년 어린이날,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이 차량을 타고 집 앞으로 가서 선물 전달하고 인사했었잖아요. 입학 후 한 번도 등원하지 않은 아이와 엄마에게 담임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상담 전화하는데 엄마의 음성이 더 친숙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C교사, 2차 면담, 4월 20일)

이처럼 A어린이집 교사들은 긴급보육을 하는 영유아들을 평소와 같이 보육하면서 가정보육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었다.

#### ④ 높아진 등원률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어려움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 영유아의 신청률은 점차 증가하였다. 2020년 6월 휴원이 해제된 후 A어린이집은 100%의 등원률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더라도 간식시간, 점심시간, 낮잠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코로나에 확진이 안된거라 생각해요. 주변에 어린이집 확진자 이야기가 나오면 안스럽고 가슴이 철렁해요. (B교사, 1차 면담, 4월 5일)

영아반의 경우 일렬로 거리를 두거나, 판막이로 가리고 식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아들의 수만큼 책상과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식사 시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일렬의 식사 방식과 판막이 가림판 사용은 쉽지 않았다. 더불어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다녀온 뒤 자녀를 등원시키는 어머니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

## 2) 코로나 19로 인한 어머니의 고민

### (1) 일하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불안함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휴원 실시가 발표되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표출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보육을 같이 제시하며 보육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① 긴급보육을 보내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

정부에서 만 8세 이하의 영유아 어머니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는 직장도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 될수록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재택 근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므로 자녀를 긴급보육을 보내는 가정도 있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케어가 안되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아이가 폐렴에 걸려 입원했는데 양가 도움도 없고 연차도 자유롭게 못쓰는 직업이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른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는데 한 명이라도 먹여주고 케어가 되니 다행이었어요. 긴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E부모, 1차 면담, 4월 8일)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보내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 ② 직장 내에 확진자로 인한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때 불안함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면서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이집 휴원 상황이라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적어 안심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직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녀와 함께 자가격리를 할 때도 어린이집 내에 적은 인원이 있어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었다는 생각에 전염에 위험성이 낮아 안심이 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이라 좋았어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등원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피해주는 것도 싫고 피해받는 것도 싫어요. (F부모, 1차 면담, 4월 14일)

아이들 아빠가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직장에서 직장 동료의 부인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선제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연락이 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냈다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코로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 같아요. (D부모, 2차 면담, 4월 21일)

## (2) 가정보육의 어려움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 어머니들이 자녀를 가정보육 함으로써 코로나 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안심을 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 육체 피로, 자녀가 적기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 사회성 발달의 저해를 느꼈다.

### ① 불규칙한 생활습관

코로나 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하자 긴급보육을 이용 권한은 어머니의 선택에 있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장시간 가정보육 하는 어머니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제 끼에 먹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이 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또 야외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보니 아이들도 답답해하고 밖에서 에너지 분출을 안하니깐 자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D부모, 1차 면담, 4월 6일)

어머니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자는 것이 불규칙해지고 영상 매체를 보여주는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생활들이 습관으로 자리잡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 되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 가정이 늘어났다.

### ② 발달에 맞는 적기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어려움

코로나 19로 가정보육하는 어머니들은 양육의 고됨과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자녀 발달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다. 자녀의 실외활동 증가로 에너지와 스트레스의 분출이 되지 않음, 비만 등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걱정하였고 영유아기에 경험해야 하는 또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서도 걱정을 토로하였다.

가정보육을 하니 외부와 접촉이 차단돼 안심이 되면서도 첫째 때 하던 것들을 둘째가 누리 지 못하니 안타까웠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집에서 방치 되는 것 같고 사회성 발달도 시켜야 하는데...그래서 이후 긴급보육기간 때는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줄어드는 것 같으면 긴급보육을 신청해서 보냈어요. (D 부모, 1차 면담, 4월 6일)

어머니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하자 자녀가 사회성 발달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리고 긴 양육 시간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 2.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노력

### 1)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노력

(1) 긴급보육으로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줄자 일대일 상호작용에 충실하다.

영유아들은 민감한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영유아들 개개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상호작용한다. 또한, 돌발 상황이 많은 현장에서는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법정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교사가 모든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다.

새학기는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작년은 소수의 아이들만 등원해서 저랑 보조선생님이 아이들의 생활을 도와주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 아이들의 기질을 파악하기 쉬웠고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을 한 것 같아요. (C교사, 2차 면담, 4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보육을 하게 되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교사 일 인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자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기질을 파악하여 요구를 더욱 잘 들어줄 수 있었고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활동을 지원하니 보육의 질이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영유아들 또한 어린이집에 더욱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한 노력을 하다.

어린이집은 어린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코로나 19 이전에도 청결과 위생에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켜지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오랜 시간을 지내다보니 전염병의 위험이 있었다.

코로나 19로 발열, 기침 등의 영아들의 등원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감기 같은 전염병의 원내 감염이 없었어요. 그래도 비염이라고 의사 소견서를 떼고 등원시키는 부모님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니 다른 친구들에게는 덜 옮기는 것 같아요. (C교사, 2차 면담, 4월 20일)

코로나 19 이전에는 감기에 걸린 영유아가 약을 가지고 등원하여도 별다른 제지를 못하여 전염병이 원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발열, 기침 등 병에 걸린 영유아는 전염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 더불어 교사들이 환기, 청소, 소독 등 더욱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인해 영유아간 병의 전염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었다.

(3) 외부와 차단된 바깥 놀이를 중시하다.

코로나 19 확산위험이 실외보다 실내가 더 취약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들의 충분한 시간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바깥놀이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외부와 차단되지 못한 곳에서 바깥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바깥 놀이가 감소되면 영유아들의 신체 운동 시간과 대·소근육 발달의 기회가 감소되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은 주변 어린이집의 아이들보다 바깥놀이를 충분히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뛰어 놀면서 아이들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바깥 놀이를 다녀와야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와서 밥도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아 꼭 필요한 일과활동이에요. (B교사, 3차 면담, 4월 26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 작년에는 특별활동을 안했잖아요. 그래도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가 숲활동이 매일 같이 이루어지니 숲놀이 활동으로 인식하고 아이가 매일 즐겁게 무엇인가 한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C교사, 3차 면담, 4월 27일)

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들의 외부 활동이 전보다 줄어들자 어린이집 바깥놀이터에서 한

시간 이상 자유롭게 놀이하는 활동에 가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육교사들은 또한 어린이집의 바깥 놀이터에서 영유아들이 외부와 차단되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교사들은 코로나 19로 긴급보육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력을 하였다. 코로나 19 안내와 영유아들의 활동공백을 메꾸는 활동 운영 등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안내 문자가 안 오네요. 그래서인지 코로나에 둔감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코로나에 대한 안내를 키즈노트를 통해 꾸준히 해주시니 코로나 19 확진자 상황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F부모, 3차 면담, 4월 30일)

아직 아이가 어리다보니 어린이집에 많이 의지를 하게 돼요. 코로나가 터져 특별활동 중단하자 숲 높이 같이 다양한 교육 활동 진행해주셔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지낸 것 같아요. (E부모, 2차 면담, 4월 22일)

영유아들의 야외 견학 활동 등 체험 활동의 제한이 있어 어린이집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많은 연구를 하였다. 동화책 프로젝트, 촉감 놀이 등 어린이집 전체를 꾸며 활동 무대로 꾸며 영유아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형극을 월 1회 초청하여 영아들이 문화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지친 학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5) 행복한 교사 되기

보육교사들은 주말이나 연차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 행복해지고자 노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쉬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일할 힘을 얻었다.

코로나로 못하는 것?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은 못 하니깐...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 가는 거 정도...그래도 숨통이 뚫리고 좋아요. (C교사, 1차 면담, 4월 7일)

코로나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저는 보육교사 이 직업이 좋아요. 아이들 예쁘고 맑잖아요. 엄마들이 일년 동안 잘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아이들과 마스크 없이 놀고 싶어요. (B교사, 사전 면담, 3월 25일)

## 2)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

### (1) 자녀와의 질적인 시간 증가

연구참여 어머니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보육을 할 때 자녀와 있는 시간이 자녀의 기질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행복감을 나타냈다. 또 재택 근무나 근무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무 형태의 변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제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다.

처음에는 아이와 있는 시간이 길어져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 했는데 내가 준비한 여러 활동을 아이와 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과학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영어에 흥미가 많았구나. 만약 가정보육기간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게 기억되네요. (E부모, 1차 면담, 4월 8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나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회사에서도 권하다 보니 이런 좋은 혜택을 쓰기 편해졌죠. (F부모, 2차 면담, 4월 23일 )

평소 사용하지 못하던 제도들도 정부에서 홍보하고 쓰도록 권유하니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와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자녀를 더욱 이해할 수 있고 질적인 보육시간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 (2) 미래의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 마음가짐

코로나 19가 장기화 될수록 어머니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 익숙해져 이에 맞는 스스로의 대응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져서인지 무더진건지 그냥 일상 생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할 수 없자나요. 저희는 직장에 다녀야하고 아이들은 자라야 하는데...

생활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전에는 자유롭게 밖에서 놀고 식당에 가고 했는데 이제는 식당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캠핑을 다녀요. 우리 가족들만 있으니 위험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니 새로운 취미가 생겼죠. (F부모, 3차 면담, 4월 30일)

어머니들은 코로나 19를 오랜 시간 겪으며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현실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변화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였다.

### (3) 전염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 형성

장기간 코로나 19를 겪다보니 코로나 19로 실천하는 방역 방법으로 손씻기 등 좋은 생활 습관이 형성된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보육교사와 어머니 모두 마스크를 일상 생활에서도 쓰다 보니 평소보다 감기와 같은 전염병 등이 적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마스크를 쓰니깐 전보다 감기 같은 질병에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고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D부모, 3차 면담, 4월 28일)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영유아들의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니 영유아들에게 좋은 위생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전염병에 걸리는 비율도 낮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실제적 고민과 노력을 들여다봄으로써 협력관계인 교사와 어머니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발생 혹은 장기화될 때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협조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월 28일을 시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안

내가 키즈노트를 통해 어머니들에게 전달되었다. A어린이집은 코로나 19 관리체계 및 유관 기관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교직원과 어머니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체계에도 A어린이집 교사들과 어머니들은 고민이 있었고 고민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을 남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교사가 겪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확진자이거나 밀접 접촉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영유아 퇴소에 따른 스트레스,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 사라진 보육교사의 인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한 명준희 외(2021), 최예린(2020)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코로나 19를 겪는 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을 밝힌 손희나(2020)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실직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한 임하진(2021)의 연구와 어린이집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지침 부족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이야기한 최윤경(2020)의 주장과 같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는 명확하지 않은 긴급보육의 정의로 인한 긴급보육 신청대상 제한의 어려움, 더 예민해진 어머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 등 어머니와 관련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보육교사는 어머니가 단체생활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신현숙, 2017), 동시에 여러 어머니의 요구를 수행해야 하므로(이연주, 2013)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민정애(2010) 또한 보육교사는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 안전 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전염병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과 더불어 대처하는 능력까지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런 교사에게 부과되는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던 어머니들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자 긴급보육을 신청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손준희 외, 2020).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코로나 19 기간 중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함께 어머니로 인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어려움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첫째, 가정보육 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습관화 되는 것과 교육이나 사회성 발달 기회 결핍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기에 경험하고 습득해야 할 또래 관계와의 소통을 걱정한다고 밝힌 주하나(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일하는 어머니는 긴급보육을 보내면서도 자녀에 대한 미안함, 직장 내 확진자로 인한 불안함, 어린이집에 피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양가 감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혜란, 한아름(202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도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의 양가 감정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노력으로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긴급보육으로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줄어들자 교사들은 일대일 상호작용 증가,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해진 보육환경 제공, 외부와 차단된 바깥 놀이터의 활용, 어머니 요구에 더 민감한 반응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사 대 영유아 수의 축소를 주장한 손준희 외(2020)의 연구,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영유아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조한 연구(최예린, 2020)와 일관된다. 주하나(2020)는 실외 놀이의 중요성을 말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들이 실외 활동을 하지 못해 체력이 약해지거나 비만이 될 수 있고 신체와 정신 건강의 불균형에 대해 어머니가 걱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유아에게 바깥놀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백금례(2020)의 주장과 뜻을 같이 하며, 동시에 영유아의 안전을 중요시 생각한 부모들의 요구를 밝힌 임순선, 조정희(201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교사들 또한 행복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변화의 개선 요구를 보였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나만의 힐링방법을 터득하고 보육교사의 복지 개선을 요구하였다. 임하진(2021)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 감경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최예린(2020) 또한 교사를 위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시에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사들의 상담 치료를 제안하였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어머니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코로나 19로 변화한 삶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가정보육을 할 때 자녀와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어 자녀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재택근무, 단축 근무 등 사회적 변화를 통해 자녀와의 질적인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하나(2020)의 유급휴가, 재택근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양육을 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므로 긴급 재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휴가와 재택근무를 성별과 연령, 직종에 구분없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어머니는 또한 다른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보였다. 어머니는 자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며 감염병에 예방하는 좋은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손준희 외 2인(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각 가정별 개별 돌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교사와 부모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극복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협력관계에 있는 교사와 부모의 상호이해를 돕고, 나아가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경감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둘째, 상명하달식의 행정적 지침을 내리기보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사의 복지 및 인권을 존중하는 소통을 토대로한 관련 부처의 운영방식의 필요, 셋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조정이다.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부모인 근로자의 재택 근무나 근무시간 단축, 자녀 돌봄 휴가 등의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근무 형태의 변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었고 근무형태의 변화는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변화된 근무형태나 돌봄지원 제도를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식을 위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수행된 제한된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집단을 비교 분석하고 추론 가능한 양적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영천(2016). **질적 연구 방법론 I : Bricoleur. 제 3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명준희·송지훈·이혜정(2021). 코로나 19 상황이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30(1)**, 35-44.
- 민정애(2010). 영유아의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아·조미현(2020). 어린이집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145-172.
- 백금례(2020). 바깥놀이와 놀이 안전에 대한 유아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III판. 세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세종: 보건복지부.
- 손준희·김선희·이희영(2020).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속 어린이집 일상 들여다보기. **인간발달의 한국저널, 27(4)**, 213-236.
- 손희나(2020).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의 어려움과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방안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17).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처리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주(2013). 보육교사의 부모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선·조경희(2019).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의 요구와 운영개선 방안연구. **부모교육연구, 16(2)**, 37-51.
- 임하진(2021).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보육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2021). 코로나상황에서의 보육실습에 관한 인식연구: Q방법론의 Q모집단 구성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8)2**, 71-93.
- 조경희(2015).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사고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2(1)**, 63-80.
- 주아련(2021).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감염병 지식, 건강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예방행위 실천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하나(2020). 코로나사태에서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학부모연구, 7(4)**, 23-48.
- 주해란·한아름(2020). 코로나 19기간 동안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기 어머니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1)**, 209-227.
- 질병관리본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4월 11일. 정례 브리핑).

- 최예린(2020). 코로나 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 최윤경(2020). 코로나 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육아정책포럼**, 65, 6-19.
- 황예원(2021).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과 어려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진호·민옥기·조아라·임환섭(2019). MIC-04: 수족구병의 원인 Enterovirus의 계절 따른 양성추이 및 검체별 양성률.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초록집**, 2019(1), 136.

Abstract

## A Phenomenal Study on the Concerns and Efforts of Childcare Teachers and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to Respond to COVID-19

Park, Seo Youn · Kim, Sook Ryong\*

In this study, amid the difficulties of COVID-19, We looked into what kind of concerns the childcare teacher and mother had and what kind of response efforts they mad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mothers from the 4th week of March to the 5th week of April 2021,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childcare teachers were experiencing COVID-19 and were having difficulty controlling their mothers. Accordingly, teachers are making efforts to provide a more thorough childcare environment for personal hygiene, using the situation where the ratio of infants to teachers has decreased due to emergency childcare as an opportunity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In addition, teachers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outdoor playground blocked from the outside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were solving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by creating a site that responded sensitively to their mother's needs. In addition, he realized that trying to become a happy teacher goes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childcare site and was making efforts to become a happy teacher. The mother's concern due to COVID-19 was that she felt sorry and anxious about her child because she was a working parent,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raise children at home. Mothers' efforts to respond to thi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qualitative time with their children, renew their mindset about future pandemic phenomena, and form good habits to prevent transmis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know the concerns and efforts of childcare teachers and mothers to respond to COVID-19 at the same tim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on pandemic policy support, which is expected to occur again in the future, and effective operation methods necessary for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Keywords** : COVID-19, the child care teacher, mother

---

\* Paichai Univers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ctorate Course

\*\*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